

전남,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이주민·여행객 잡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 광주·전남에 100만명 시대
동물 문화교육센터·테마파크에 시·군직영 공공진료소 열어
지자체 주요 관광지와 어우러져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한 곳에서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교육센터) 놓고 즐기며 생활하다가(테마파크) 놓고 병들어 아픈 반려견을 제대로 떠나보내는(장례) 건 쉽지 않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반려인들의 이같은 바람은 '아득한' 꿈이다. 광주·전남에만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최소 100만명에 달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생기는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어려움을 해결할 시설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데려다 치료하고 돌봐줄 병원은커녕,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숨졌는데 제대로 떠나보낼 장례업체 한 곳이 없어 '원정 화장'을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뒤늦게나마 동물 친화적 환경을 갖추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에도 한 곳 없는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세우고 함께 놓고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을 세우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육센터 등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쌓아보면 관광객 선호도가 높아져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민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반려견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위한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에 테마파크까지=당장, 오는 12월 순천에 완공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문화·교육·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광주·전남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전남도(28억)와 순천(53억) 등이 모두 93억여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목표로 반려동물 입양 전 인식 개선을 위한 입양홍보실, 반려견을 키우는데 발생하는 돌출·이상행동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려인·이웃과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교정실, 펫티켓 교육장, 체험학습실 등도 갖췄다. 대형견과 중소형견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사진·영상촬영공간 등도 들어선다.

순천은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5월 마무리되는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80~100억원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놀이터·펫 수영장·산책로·장묘시설 등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순천만국가정원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만들어진다.

여수·나주 등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다. 나주시는 펫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 등을 갖춘 85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도 반려동물 양육기구만 전체 가구수(12만 7000가구)의 25.2%에 이르는 3만 2000가구인 점을 감안, 시장 공약사항으로 놀이터·산책로 등이 포함된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2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완도군도 1억3000만원 등을 들여 신지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공공병원 등 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도=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 조성에 나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4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첫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했다. 공공진료소는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동물이 보호센터에 입소하기 전 검사를 통해 질병을 파악하고 치료를 해준다. 재입양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담양군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의 경우 무료로,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30%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쌀값 대책 마련하라” 농민·시장군수·도지사·국회의원 모두 나섰다

전국 8개 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농민들도 거리에서 절박함 호소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올해 햅쌀 수매값 향상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도 공동으로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의도 정부의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놓는 등 각계에서 촉박하는 쌀값 안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전국 8개 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 원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재고 물량 등으로 올해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원가는 상승, 더 이상 농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쌀 생산 농가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게 이들 요구다.

도지사들은 ▲수입쌀 포함 80만 t인 공공비축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t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수요 초과생산물량 전량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 수급문제 만큼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도 거리에서 나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분부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갖고 ‘비상식량 180만 t 비축·수매’, ‘농자재값 폭등, 나라값 폭락 지구책 마련’, ‘쌀 수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기계, 트랙 행진을 벌였다.

같은 날 해남에서 열린 제 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에서도 전업농민들은 쌀값 마련을 위한 강도높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997년 쌀 농업 보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 회원은 전남지역 1만971명을 포함해 7만 6000여명에 이른다.

이은만 새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은 “2021년산 수매시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쌀값은 20kg 기준으로 전년보다 24% 하락했고 벼값은 40% 하락했지만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만을 말할 뿐,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다”면서 “올해 벼 수매값 향상을 위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총장로 상권 침체... '스타벅스'도 손 들었다	▶6면
임의진 광주 속살 순례기 - 무등산	▶16면
광주FC 'K리그1' 복귀 매직넘버 1	▶22면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